

연중 제28주일

기도서 455 면

제 1 독서: 지혜 7, 7-11

제 2 독서: 히브 4, 12-13

복음: 마르10, 17-30(17-27)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 3201

□ 강론



“순간의 선택이...”

현 유 복 신부

“한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XX컬러 텔레비전” 엄청난 상품과 홍수같은 선진공세에 골치가 멍-하고 귀가 멍-합니다.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여유도 없이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 당합니다. 정부는 수시로 방침을 강요하고, 갖가지 유행은 꼬리를 물고 바꾸기를 강요합니다. 요즘은 시골 국민학생들까지 에어로빅 맨스런 신식 춤에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 선택을 포기한 자유인, 이제 자신이 좋아하던 색깔이나 모양을 포기한 채 동전 몇 개에 팔린 몸으로 대중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는 반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녕, 세상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다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는 흔히 뽀모삼치의 이야기를 들어 환경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세번까지 이사를 하며 환경을 바꾸었던 맹자 어머니의 자유로움이 더욱 소중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끈적이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든 동네와 이웃을 떠나야 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맹자 같은 훌륭한 성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무엇을 취하고 포기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포기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희생입니다. 더더욱 애써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야 한다면 굉장한 작오가 있어야 하겠지요. 여기에 신앙인의 갈등이 있고 커다란 결림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심계명(울법)을 어릴 때부터 충실히 지켜왔고, 남보다 선행 하나라도 더 쌓았다고 자부한 그였지만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도, 자신을 비우지도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등질 수 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핑계 댈 마음이면 어디 황급이나 시간이나 가정뿐이겠습니까? 그것들에게 이미 빼앗긴 마음인 이상 모든 것은 핑계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대로 눈덩이가 녹으면 드러나듯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 토마스 모어는 주님을 더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부귀 영화도, 권세도, 그리고 사랑하던 가정도 포기하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용안 성당 주임신부>



젊은이들, 교구민의 38%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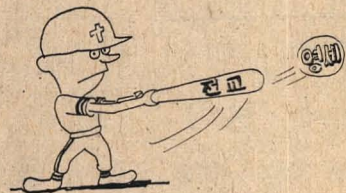
10월은 전교의 달이다. 해마다 맞는 전교의 달이지만,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앞둔 이 마당에는 무언가 새로운 자제가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사가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되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전교 방법이 개발되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옛말에 ‘앞에서 벌고 뒤로 밀린다’는 말이 있다. 해마다 애를 써서 영세를 시키지만, 왜 그만큼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가? 물론 세상을 뜨고,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물리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세례를 받고도 교회와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1년말 교구 신자수는 69,500명인데, 교회와 멀어져 B교적에 남아 있는 수가 무려 6천명이나 된다. 거의 1할에 가깝다. 이 문제, 한번 관심 좀 갖자.

우리 교구에 중·고등 학생에 해당되는 14~19세의 청소년이 1만명이고, 20~30세 청년이 1만4천명이다. 내일의 주인인 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이들을 위한 모임이나, 이들을 위한 본당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젊은이들이 전교구민의 38%나 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 태세는 갖추었는가? 왜 젊은이들은 자꾸만 교회 밖에서 맴도는가?

본당에 중·고등 학생회가 있고, 쉼 조치가 있고, 전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나 아직도 멀었다. 이들의 지도문제를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젊은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 200주년을 앞두고 신자 배가운동 이상으로 신경써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숲 정 이 산책



당신은 안타를 몇 개나?

□ 로사리오 기도

환희의 신비에 대한 묵상

첫째 신비 : 성모 영보

잠시 우리는 거룩한 로사리오라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말씀의 기원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의 동정녀께 드린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께 “은총이 가득하신 여, 기뻐하소서”(루가 1,28)라는 말로 인사드릴 때에는 그 인사가 복되신 동정녀께서 원죄없이 잉태의 순간부터 누려 오시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의 극진한 총애에 상응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선택의 신비 앞에서는 하느님도 매인 데 없이 자유로우시고 사람도 매인 데 없이 자유로운 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느 면에서, 또 사실 그대로 하느님은 마리아의 인격적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에는 자유가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까닭입니다.

동정녀께서는 당신 내심에서 움직이는 진리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화된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

그 순간 ‘새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이 출발점으로, 성모 영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덕분에 인류 역사에 새시대가 열렸고 새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비 : 엘리사벳 방문

폴란드에서는 성모의 엘리사벳 방문을 정말 특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 20년을 두고 ‘검은 성모님’의 화상(畫像)의 순례가 있습니다. 이 성상은 1957년에 순례를 시작하여 오늘도 순례길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깊은 종교 체험과 오래 기도 진실한 영적준비와 철야를 감행하려는 마음 자세와 기도—이 기도는 마을 본당 신자들, 이웃과 가족을 한데 뭉치게 만듭니다—덕택입니다.

이렇게 하여 옛적에 마리아께서 야인 카림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첫 방문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각 본당에, 하느님 백성의 모든 공동체에 모셔들입니다. 전에 신자들 사이에 하신 것처럼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한 대로 신앙의 순례를 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모셔들입니다.

셋째 신비 : 예수 탄생

성탄밤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드높이 고양된 밤입니다. 이 밤에 인간은 자기 기원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양자가 되는 밤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생깁니다. (로마 8,15; 갈라 4,6) 땅의 표면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이 내적 변화는 성탄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절의 기쁨, 만민의 기쁨이 우려나오는 명분입니다. ‘산모가 임금을 낳았도다’(성무일도 찬가 2).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혔다”(루가 2,7) 이 말구유 위에서 천사들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이 말구유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말구유가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최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통한 만남 말입니다. 그 만남에서 인간의 희망이 태어났고 끊임없이 다시 태어납니다.

네째 신비 : 예수를 성전에 드리심

교회는 성탄 후 40일 후에는 영적 내용이 풍부한 사건 하나를 경축합니다. 그날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한 서민의 아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겨 오십니다. 이곳은 본시 당신의 성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에 주님으로서가 아니고 율법에 예속된 사람으로서 성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메시아가 성전을 찾아오신 첫 번째 후에서 하느님이 나이 많은 시므온에게 언약하신 바가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메시아다운 품위가 명백히 계시된 여러 사건 중에 맨처음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나 새 이스라엘이나 많은 이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일이 그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은 율법의 규정대로 성전에 봉헌되심으로 시작되고, 영원한 사랑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완성을 봅니다.

다섯째 신비 : 예수를 성전에서 찾으심

학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던 예수의 이야기는 루가가 매우 소상한 대목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열두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역사적 차원이 있습니다. 성가정은 히브리 백성의 옛 관습에 따라 빠스카를 지내려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를 찾아다니고 사흘만에 찾아낸 사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2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의식을 뚜렷이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가 학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애배우며 대생했다는 어머니의 말에 소년 예수가 약간 힐난조로 대답한 말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루가 2,49) 예수는 이 말을 한 뒤 온순히 나자렛 집으로 돌아가 서론이 되기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으니다”(루가 2,51) 거룩한 교회가 수십 세기를 걸어오면서 이 일을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새벽지에서—

□ 순정이 편집 홍보곡으로 이관

그동안 사목곡에서 편집, 발송하던 주보 순정이가 교구에 홍보곡이 신설되면서 홍보곡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순정이를 성원하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각종 신발 도산매

새 마을 신집

숙녀화 · 아동화 · 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주단 · 포목(훈수 · 회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핑크)카네지 도매상


서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 고 눈을 편 하 고 보호하는 보안당  센터

시원하게

교우들에게 저렴한 가격, 최고 수준의 안경을 제공함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선



□ 제8회 중·고 교리 경시대회 평가

1. 교리 경시대회에 참여해야 할 학생 총수는 5,838명인데, 응시한 학생수는 1,673명으로 교리 경시대회의 응시율은 35%로 지난해 28%보다 7%가 높아졌다.
2. 금번 교리 경시대회의 중학교 평균 점수는 65점이고, 고등학교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성적이 저조한 편이다.
 - ① 성적이 우수한 본당(평균 80점 이상)
중등부—순창, 임실, 무주, 정읍, 화산
고등부—주현동, 삼례, 고산, 화산, 정읍, 순창, 임실, 무주
 - ② 성적이 저조한 본당(평균 60점 이하)
중등부—김제, 상판, 한들, 대야, 둔율동, 파티마, 노송동, 숲정이, 덕진, 서학동, 팔마, 전동
고등부—대야, 숲정이, 덕진, 서학동, 팔마, 전동
3. 응시자가 부진한 본당(10% 미만)
중등부—고창, 함열, 여산, 용안, 장수(이상 불참), 숲정이, 파티마
고등부—고창, 함열, 여산, 용안, 장수(이상 불참), 부안
4. 전체적으로 시험감독의 소홀과 개인 부정행위가 많다. 꼭 시정되어야 한다.
5. 많은 본당이 교리 경시대회를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각 본당 응시 현황

본당명	중 등 부			고 등 부			본당명	중 등 부			고 등 부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고 김	12			14			복	110	26	74.2	97	27	79.4
김	80	31	46.1	227	35	68.6	자	160	35	53.3	141	41	76.7
부	32	7	72.2	71	3	68	동	88	8	45.3	76	24	27.7
원	28	12	61.8	11	7	71	북	174	19	48.1	206	25	58.8
수	60	39	73.9	28	19	72.3	진	91	25	61.9	91	27	60.6
신	44	19	79.7	34	9	77.5	덕	19	8	90.8	18	26	87.9
태	100	15	85.4	57	19	85.4	남	6	17	87.5	6	13	90.5
인	112	16	55.4	63	19	58.1	순	55	19	48.2	19	22	69.5
을	69	56	59.4	59	33	64.2	임	31	13	69.5	24	14	72.8
동	51	22	79.1	62	10	71.3	상	41	11	82.5	29	25	82
정	95	31	72.6	106	21	71	금	14	16	72.2	15	17	78.9
경	39	26	47.8	47	8	39.4	주	29			21		
문	212	79	63.3	190	65	77.5	장	43	31	77.9	35	4	76.5
을	54	19	75.7	52	18	87.1	계	30	27	50.9	6	7	70.4
동	91	10	65.9	88	21	80.2	산	40	27	80.4	41	23	88.7
양	35	28	65.9	20	7	84.7	안	50			41		
주	270	53	60.5	383	66	68.3	열	101			61		
삼	211	74	43.1	241	82	51.7	화	34	18	74.6	28	21	64.5
상	150	26	52	115	39	57.9	영	17			13		
고	64	6	45.5	60	6	74.7	향						

▲입상자 명단(개인상) 중등부: 1등-김성환(오룡동) 99점, 2등-김은주(창일동) 98.5점, 3등-김상현(고산) 98점, 4등-장민기(노송동) 97점, 5등-정창용(오룡동) 96점 · 천명숙(화산) 96점

고등부: 1등-강수정(김제) 100점, 2등-은경숙(황등) 99점, 3등-김기원(주현동) 98점 4등-유석미(주현동) 97점, 5등-박명숙(둔율동) 96점 · 김경선(임실) 96점

단체상(중등부): 1-임실, 2-진안, 3-화산, 고등부: 1-임실, 2-순창, 3-장계

□ 해고된 태창 메리야스 여공들을 돕는 성금: 보나, 말다, 아나다시아, 아우구스피노, 빈첸시오, 야고보, 무연실, 익명(각 1만원), 익명(5천원), 계: 85,000원

요심이 (479) 김병오

독립기념관 건립기금을 많이 낸 사람은 큰 할자로

조금 낸 사람은 작은 할자로 보도했구나!

어 일계와 누계는 보도 않습니까?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 전자 계산기가 고장 나서 그런데

82年度

全州 聖心 女子 中高 定期 同窓會

일시: 10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모교 도서관
(본관 5층)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킹검 로가디스 소사이어티

위크엔드 간이북

런던포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피노키오 아 등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학약국 옆 @ 4 4 5 1 주인 유 울리안나

챌린저 주니어북

홍삼, 수삼, 미삼
로얄제리, 화분가루
(일절구비, 도산배)

임마폴라따
인삼양봉원
☎ @ 9590 번
백영순(글라라)
서학동 교대 부속열 100m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전화 @ 2 6 2 8
이마리아(명자)
범띠또(덕배)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4지구 남자 전체 전모임 : 고등학생·대학생·미혼 남성, 일시-10일 오후 2시30분, 중앙성당
2. 전주지구 울드레야 : 일시-13일, 전동성당, 안진-임원개선
3. 전국 주교회의 : 15일부터 기도중에 기억합니다
4. 회장단 피정결 연수회 : 일시-16일 오후 3시~17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6,000원, 대상-각 본당 회장단 1명, 교구 제단체 대표 1명
5. 5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모임 : 일시-17일 오후 2시, 장소-남원 천주교회
6. 82년도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동창회 : 일시-10월 17일(월), 장소-모교 도서관(본관 5층) 오후 3시
7. 축! 영명일 : 14일-갈리스도 정 태현 신부님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보좌 김인협
보좌신부 박인협
사도회장 김인협

◎ 성경읽기 : 지혜 7장, 루가 11장

1. 구리아. 단원들의 M.B.W 교육원계로 17일 오후 2시로 연기합니다.
 2. 견진성사 : 31일 새 주교님 주례로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교리는 26~30일까지 오후 7시30분~8시30분 장소-강당,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3. 성전 신축현금 : 신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종삼·김유정(각 10만원), 정필원(만원), 문순례(50만원), 신입총계 : 90,063,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66,198원 교무금 : 803,000원

(노송동)

신부 0969 수.사 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신부 박성팔
사도회장 이홍재

1. 축! 환영 : 김용태(베네딕도) 신부님 부임 새로 오신 주임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레지오단원 연수회 :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각팀에서는 1명씩 참가시켜 주세요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 2,000원
 3. 금주의 성경읽기 : 요한복음 전체
 4. 구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6.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7. 예비자 교리안내 : 일반-매주(월)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8. 전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미사-매주(월) 오전 9시
- 지난주 봉헌금 : 398,703원 교무금 : 495,000원

(덕진)

전화 0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안철운
사도회장 양상열

1. 환영합니다 김봉희(요한)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반석회 월례회의 : 제재주로 변경) 공식미사 후, 꼭 참석하세요
 3. 구리아 월례회의 : 오늘 오후 2시, pr간부님 꼭 참석
 4. 주일학교 어린이 4지구 체육대회 부모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5. 밀린 봉헌금 납부하여 본당살림 도와주세요 봉헌봉투는 꼭 확인하시고 사용합니다
 6. 1세대 1인 인도봉헌서 봉헌합니다, 신자의 의무를 다하여, 본당 발전에 함께 동참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53,695원 군인주일현금 : 88,510원

(복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회장 조성호

1. 김중택(요셉) 신부님께서 5년 5개월간 복자성당에 계시면서 많은 성구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권영균(안토니오) 신부님 :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봉헌금 : 미수 완납 바람
 5. 자모회 : 11일 어머니 미사후
 6. 중고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미사에 나와 미사하고 교리에 응해주시기 바람
 7.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조성호 ②김인식 차주전례 : 해설-안경례, 독서-①김성원 ②강기연
- 지난주 봉헌금 : 461,030원

(서화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회장 황인구

1. 반장님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반장님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 구리아 모임 :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단원 참석바람
 3. 성심회 모임 : 13일(수) 오후 2시 성당 회의실
 4. 할머니 모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미사시간안내 : 주일-새벽 6시, 중·고학생미사 아침 8시30분, 낮 10시 공식미사, 밤 7시 월요일-새벽 6시, 화·수·금요일-밤 7시, 목요일-어머니미사 낮10시, 토요일-주일 학생미사 오후 3시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수길 ②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 246,100원 교무금 : 278,000원

(숲정리)

전화 07366 수.유 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회장 김수립

1. 축! 환영 : 김종길(라파엘) 신부님께서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환영식-10일 공식미사 후
 2. 구세주의 모후 구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3. 성지순례 : 14일 6시 미리네 김대건 신부 묘지 참배
 4. 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홍성조·김경주, 기도-이기호
 5. 미사참례자 안내 : 이정남, 방창주, 신중남, 이명자, 임영리
- 지난주 봉헌금 : 524,200원

(전동)

전화 신부 6208 사.우 3222 수녀 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신부 박병준
사도회장 이종두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장우회 공식미사 후
 3. 성화회 꼬미시움 : 다음주
 4. 예비신자 매월 모집 : 주요일반-저녁 8시, 주일 아침반-공식미사 후, 주일 저녁반-저녁미사 후, 중·고생반-토요일 오후 3시30분
 5. 젊은이 성가대원 모집 : 뜻있는 분은 성가대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세요
 6. 미사시간 변경 : 평일 저녁미사 11일부터 오후 6시30분(주일 저녁미사는 전과 동일)
 7. 주일학교 합창부 합창복 : 50명 회사-양현홍, 최춘자 내외분, 양말 50켢레 회사-홍화영(4) 어머니, 남학생 성의 8벌-합창부 각 남학생 어머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전동의 밤 행사 : 16일(토) 오후 6시30분 전동성당 중·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주영 ②배양길
공식미사 : 해설-서정우, 독서-①이영태 ②김병오
저녁미사 : 해설-김운주, 독서-①이영철 ②변해식
- 지난주 봉헌금 : 573,740원

(파티마)

신부 0915 수녀 4804

주임신부 김영필
사도회장 황희삼

1. 성모회 성지순례 : 13일, 행선지-절두산과 새남터, 참가인원-80명
 2. 9월에 영세하신 분께서 가급적 교회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3. 각 빠르게시디움에서는 레지오 단원 모집에 적극 활동하여 일가족에 한분이라도 가입시킵시다
 4. 다음주 재경분과 위원들의 참석을 요망합니다
 5. 예비자 교리시간 : 매주일 10시 미사후
 6. 교리반 어린이들의 교리시간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192,820원 교무금 : 340,000원